어르신 무료버스 달린다

광양시, 10월부터 65세 이상
여수시, 내년부터 75세 이상

지방선거 공약으로 출발한 '어르신 무료 버스'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남 동부권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광양시는 오는 10월부터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버스를 운행하고, 여수시는 내년 1월부터 75세 이상 시민을 무료로 태운다.

지난 31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65세 이상 시내버스 복지교통카드' 사업 세부운영 방침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무료 버스'는 정인화 광양시장의 민선 8기 공약이다.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시는 복지부 협의를 마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복지교통카드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광양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이라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발급받고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광양시는 교통카드 발급 회사에서 발생한 손실요금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 버스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석 달 동안 추진하는 무료 버스사업에는 2억5200만원의 시비가 들어간다.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10억800만원가량이 될 것으로 광양시는 내다봤다. 이밖에 시가 올해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할 경영개선 재정지원 금액은 51억4200만원이다.

이달 현재 광양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2만2000여 명으로, 시는 이 가운데 약 5600명이 무료 버스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했다. 광양지역 성인 시내버스 요금(현금)은 1500원으로, 한 달 10차례 탑승을 전제로 하고 사업 대상자 수를 산출했다.

광양시는 복지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을 지난달 착수해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진행한다.

용역 비용은 시스템 개발 1억1000만원, 카드 발급 1억4000만원 등 2억5000만원이 소요된다.

내년 1월부터는 여수시도 '어르신 무료 버스' 대열에 합류한다. 단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고려해 대상 나이를 75세 이상으로 올렸다.

여수에서 무료 버스를 타게 될 75세 이상 인구는 2만5000여 명으로, 연간 14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 시내버스는 민영제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올해 국비·도비·시비를 포함해 251억원을 지원받는다.

여수시가 올해 1월 한 달 동안 시민 6288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5세 이상 무료 버스 시행'에 대해 '찬성한다'는 답변 비중은 80%로 나타났다.

무료 버스에 찬성한다는 답변율은 20대 이상 65%, 70세 이상 90% 등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무료 버스를 반대하는 응답자의 66%는 '다른 복지사업에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 28%는 '대상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자 '요금 할인'(46%)을 가장 많이 꼽았고, '버스 운영체계 개선'(26%), '시설 개선'(14%), '서비스 향상'(13%)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고령자 대중교통 무임승차 사업은 올해 대전과 대구 등 대도시에서 추진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세종시는 한 발 더 나가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의 대중교통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어르신 무료 버스'는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28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다. 대상 연령별로 보면 '75세 이상'은 충남 15개 시·군과 강릉시를 포함한 16곳, '70세 이상' 5곳, '65세 이상' 7곳 등이다. 버스 완전 공영제를 운용하고 있는 신안군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넘게 65세 이상 지역민을 무료로 태우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교통비 부담 없이 병원에 다니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민선 8기 공약의 하나로 75세 이상 무료 버스를 추진하게 됐다"며 "다만 가파른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고려해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한 기준 연령 65세 대신 75세 이상으로 나이를 한정했다. 규모가 비슷한 춘천시의 경우 65세 이상 무료 버스를 시행한 1년 새 65세 이상 인구가 3000명 늘어난 점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군, 1조대 국책사업 양수발전소 유치 나서

군의회·한국중부발전과 협약
후보지 조사·주민설명회 거쳐
산자부에 유치 신청하기로

구례군(군수 김순호·가운데)과 군의회(의장 유시문·오른쪽), 한국중부발전(사장 김호빈)이 지난 31일 군청에서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이 1조원 규모 양수발전소 유치에 나섰다.

지난 31일 구례군은 군청 상황실에서 김순호 군수, 유시문 구례군의회 의장,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양수발전소 건립은 1조원 규모 대형 국책사업이다.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세 기관은 양수발전소 유치 신청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양수발전은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하부지의 물을 상부지로 끌어올렸다가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상부지에서 하부지로 물을 떨어뜨려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 방식이다.

양수발전 시설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수급하고, 환경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장점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구례군은 에너지 생산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모두를 충족할 대형 국책사업인 양수발전소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양수발전소 가동에 활용되는 상부·하부 저수지는 지역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지자체의 유치 열기가 뜨겁다.

구례군 관계자는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은 건설·운영 기간 관련 법률에 따라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양수발전소 유치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중요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군의회와 함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양수발전소 후보지 입지 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최종적으로 사업을 신청할 방침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순천문화재단 9일까지 3기 임원 공개 모집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이사장 노관규 순천시장)은 오는 9일까지 3기 임원 14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순천문화재단은 최근 2기 임원 임기가 만료되면서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3기 임원을 모집하기로 했다.

재단은 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 13명과 감사 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사는 재단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감사는 재단의 재산·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자, 문화예술에 대한 비전과 혁신 의식을 가진 자 등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감사는 회계·감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춰야 한다.

순천시 영동 순천문화재단 전경. 〈순천시 제공〉

이달 1~9일 지원 접수를 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진행한다.

면접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 순으로 임원 후보자를 확정해 이사장에 추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와 순천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보성군 겸백면 주월산 '윤제림'이 1일부터 유료로 입장객을 받는다. 윤제림 수국밭. 〈보성군 제공〉

수국·편백…보성 주월산 '윤제림' 입장료 받는다

오늘부터 성인 6천원…1962년부터 조성된 민간정원
모노레일·임산물따기·패러글라이딩 체험 등 다채

보성군은 겸백면 주월산 '윤제림'이 1일부터 유료(성인 6000원·보성군민 4000원)로 입장객을 받는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겸백면 주월산 일대에 자리 잡은 윤제림은 100만평(337ha) 규모를 자랑하는 민간정원이다.

윤제림에서는 지난 1969년 심은 해송과 편백나무 6만본의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붓꽃과 버드나무, 안개 나무 꽃들이 가득하며, 산책길과 사진 촬영 공간도 만날 수 있다.

전남도 민간정원 12호로 지정된 성림원을 품고 있고, 주월산 정상에서는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달 수국 4만본이 개화를 앞두고 있어 여행객 인기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모노레일과 임산물 따기 체험 등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윤제림은 300명이 동시에 투숙할 수 있는 숙박시설도 갖췄다.

숲속 야영장 야영데크 15개소, 숲속의 집 12동, 아치하우스 18동, 단독 숙박시설 6동 등이 있다.

윤제림은 지난 1964년부터 조림 사업을 시작했으며, 2대에 걸쳐 60년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 2020년 산림청에서 산림 명문가로 지정되기도 했다. 산림청은 대를 이어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는 가문을 '산림 명문가'로 지정하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여러 TV 예능에 소개되기도 했다. 자세한 사항은 윤제림 홈페이지(yunjeri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광양시, 3일 '환경의 날' 기념행사

백일장·나눔장터 등 다채

광양시가 '세계 환경의 날'(5일)을 이틀 앞둔 3일 마동근린체육공원에서 '28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리는 행사 주제는 '내가 꿈꾸는 플라스틱 제로도시 광양'이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15개 환경단체와 학생, 시민 등이 다양하게 참여한다.

행사에서는 환경보전 유공자를 표창하고 환경의 날 기념사 낭독, 환경 문제 풀기 대회 등이 진행된다.

환경보전 실천을 다짐하는 초·중·고교생 백일장·사생대회도 열린다. 행사 당일 현장 신청도 할 수 있다.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재활용 나눔 장터'와 '폐건전지 교환', '폐현수막·양말 재활용', '행운권 추첨' 등도 마련된다.

김재희 광양시 환경과장은 "이번 환경의 날을 계기로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한 환경보호 문화가 퍼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불필요한 에너지와 자원 낭비를 줄이고 자연환경을 존중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일자리 정보 한눈에 편리하게"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구축 나선다

'희망일자리센터' 홈피 개편…읍면동 '일자리 지도' 등 신설

광양시가 연말까지 지역 일자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가칭)을 구축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시비 2억원을 투입해 광양시가 운영하는 '희망일자리센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6월 중 용역 사전 절차를 마치고,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광양시 희망일자리센터 홈페이지는 지난 2010년부터 운영돼왔다.

고용노동부 취업포털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지역별·직종별 채용정보를 활용해왔다.

그동안 홈페이지 편의성이 떨어지고 일자리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광양시는 단편적인 구인 정보 위주 제공에 그치지 않고 공공·민간 일자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구인 기업의 근무환경과 복리후생 등을 알 수 있는 기업 홍보영상을 마련하고, 구직자의 잠재력을 선보일 수 있는 자기소개 영상까지 만들 계획이다. 광양시는 구인 기업과 구직자 간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일자리-수요 불균형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 읍·면·동 지역 단위별로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일자리 지도'와 광양시 지원사업과 관련한 취·창업 정보를 신설한다.

맞춤형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성별 ▲나이별 ▲청년·신중년·노년·경력단절 여성·장애인·취약계층 등 대상별 ▲정규직·시간제·일용직 등 근로 형태별 ▲서비스업·제조업 등 업종별 분류를 세부화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올해 말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구축을 앞두고 기업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플랫폼 이름을 공모할 계획이다.

이화엽 광양시 투자일자리과장은 "우리 시는 이차전지산업 등 늘어나는 일자리 수요에 대비하고 그동안 산재해 있었던 공공일자리까지 통합해 운영하는 일자리 플랫폼이 필요했다"며 "이번 일자리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통해 모든 시민이 모든 일자리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하고 구인 구직난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시, 낭만포차 호객행위 근절…CCTV 3대 설치

여수시는 낭만포차가 있는 여수해양공원에 음식점 단속용 다목적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호객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여수해양공원은 음식점 간 과열 경쟁으로 호객행위가 끊이지 않아 시민과 관광객의 민원이 제기돼왔다. 설치된 CCTV는 고정식 3대로 24시간 녹화할 수 있다.

시는 상시 관리하며 호객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 처분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해양공원 음식점의 위생과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음식점주들도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호객행위 근절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